구역예배 말씀 2022년 11월 13일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56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95장(새찬송가 342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 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 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사건과 연장선 상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주일 본문에 포함되었던 40 절에서 4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 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 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편 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 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린 사람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제어린 딸이 다 죽어 갑니다. 제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절박한 목소리로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9절~56절 강해 설교"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회당 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구경거리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며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 밀고 당기며 가는 연고로 마음이 급한 회당장에게는 일각(一刻)이 삼추(三秋)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진행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 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주님을 밀고 있 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재 빨리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이 상황파악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시도하듯 하 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 드리며 자기에게 방금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모 두 말했습니다. 그가 열두 해를 앓아오던 혈루병을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 었더니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사실을 고백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상치 못한 신기한 사건 발 생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회당장 야이 로의 심정은 두 가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적 치유는 그의 믿음을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시간이 지 체되므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의 딸로 인 하여 안절부절못하였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등장 은 그에게 희망을 증가시켜주는 한편 예수님이 가 시는 길을 막고 지체시키므로 불안과 초조를 증대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소매를 끌어당기어 얼른 그 자리를 떠나 계속 진행하도록 재촉하고 싶었습 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 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 더 폐를 끼 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 시는 일에 대하여 회당장이 그의 집을 떠나기 전 에 여러 사람과 함께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라도 하 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 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 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뿐이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 상 부담을 주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시자는 뜻입 니다. 비보를 접한 회당장 야이로는 아뜩하였습니 다. 온 몸에서 기운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하였습 니다.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 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회당장의 집 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엿들은 예수께서 회당장 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 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라"라는 이중명령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믿음을 계속 굳게 지니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회당장 야이로는 즉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 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 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장의 집 안은 죽음을 애도하는 호곡과 피리 부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죽은 날 매장합니다. 저녁 무렵에 죽었으면 다음날 매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특징짓는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고 겉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거나 땅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겉옷을 찢어 내려뜨리 는 방법에도 39가지 이상의 규칙과 법규가 있습니 다. 죽은 사람을 위해 큰 소리로 애곡합니다. 직업 적인 애곡꾼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문상객들이 오면 이 애곡꾼들은 죽은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 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슬픔 을 자아내도록 애가를 읊으며 곡성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는 째 지게 슬픈 소리를 내었습니다. 울음꾼들의 통곡소 리의 높낮이에 맞추어 피리를 불었습니다. 사회적 으로 유력한 인사인 회당장의 집안이므로 고용된 애곡꾼과 친척과 조문객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 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 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습 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1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 듯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셨습 니다. 그러자 애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 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 고 야유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반응한 근본 원 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 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인 복음을 거부하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이상도 이하 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삶 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인생관, 역사관, 생사관, 가 치관이 결정됩니다. "저희가 비웃더라."는 말은 미 완료 시제로서 반복하여 치근거리며 조롱하는 모 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정녕 죽은 아이의 부모심 정을 가졌다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자로 인한 슬 픔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직업적으로 애곡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 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사가 사나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어보내 셨습니다. "내어보내셨다."는 원어는 강압적으로 몰 아내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을 부정하고 나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 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된 예수 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뉘어 있는 곳에 들어 가셨습니다. 아이는 열두 살 된 소녀였습니다. 외동 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 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 니다. 경탄의 놀라움과 감동이 온 방안에 가득 찼 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순간 기쁨의 눈물로 변하 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이 알려지면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충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자를 처단하려

고 하는 로마 당국이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병이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몹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 험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사건기 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회당장 야 이로의 믿음과 당면한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정통파 신앙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면 누구나 예수님을 백안시하였습니다. 특히 지 식 계급에 속한 율법학자들과 지독한 율법주의자 인 바리새인들, 부유한 권력집단에 속한 제사장들 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급 인사인 장로 들과 회당장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 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아래 엎 드린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 당장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입 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집단적인 성격 을 가지게 되면 그 영향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 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님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뭇 사람이 둘러서 서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 것 입니다. 이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음이 밝히 증명된 것입니다.

둘째, 회당장 야이로는 신앙에 걸맞지 않은 체 통을 고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통이란 '지체나 신분에 알맞은 체면'을 의미합 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체통과 내버려 할 체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통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을 생각나게 합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안친다."든지, "양반은 얼어 죽어 도 겻불에 손 안 쬔다."는 이런 류의 체통은 백해 무익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회당장은 조선시 대의 양반 이상으로 더 체통을 생각하는 계급입니 다. 유대사회는 회당 중심의 사회라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닙니다. 이 회당에는 열 명의 관리자들이 있 었고, 그 중 세 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임무를 맡았 습니다. 회당장이란 회당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유지 관리하며, 회당의 업무 전반을 책임 맡은 자 입니다. 회당장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망과 덕망 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사 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회당장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님의 발아래 엎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의 아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감 안해 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 한 편견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서 그것도 건물 안이 아닌 해변에서 회당장이라는 체통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발아래에 엎드 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 기는 하되 노골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체통 체면을 지 키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 에서는 신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깊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세 상적인 체면을 유지하려고 신앙생활의 진보를 스 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발전에 장애가 되는 체통 체면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 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기 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 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 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이다"(눅 18:15~17) 하였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체통 체면을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길을 모색하고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 식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 간청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면 자신의 권위와 위 신과 체면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 랑과 능력을 입게 하여 줍니다.

셋째, 회당장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본문에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자 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하였는데 마가복 음에는 "많이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간 구하여"라고 표현한 용어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이 아니라 거듭 거듭 간청한 것입니다. 사정이 절 박하면 부르짖어 계속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 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 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가뭄 해소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갈멜 산꼭대기 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 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기를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 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 지 다시 가라"하였습니다.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간구하며 응답의 징조를 살폈던 것입 니다. 마침내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자 거지 바디매오는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그가 매일 동냥 그릇 을 놓고 앉아 구걸하는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 여들었습니다. 그가 귀동냥을 하여 예수님이 여리 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온 신경을 곤 두세웠습니다. 그 때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디매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벽력 같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디매오에게 "잠잠하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러자 바디매오는 기회를 놓칠세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바디매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바디매오, 회당 장 야이로의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지침과 본보 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회당장 야이로는 좌절감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구경꾼들이 에워 싸 따라오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옮기는데 지장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 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인 내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그의 딸 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희망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께서 그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 니 회당장은 곧장 좌절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집까 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좌절감 을 갖게 하는 시련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주님 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심기일전하게 되어 좌절 감을 극복하도록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심기 일전하게 됩니다. 좌절감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중 에도 이런 체험을 간증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 다. 좌절감을 극복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나은 소망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자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길에서 갖가지 시련 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슬픔과 좌절감을 하나님 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성도에게는 그 일들이 영 광과 기쁨으로 전환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다섯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 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셨습니다. 회당장은 그대로 순응하였습니다. 회당 장의 집안은 죽음을 애도하는 호곡과 피리 부는 소리로 소란했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자들에 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습니다. 그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순순히 나갈 턱이 없습니다. 그들 은 회당장의 요청을 받았고 일당을 받고 그 임무 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나가라 말라 하느냐"라고 항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그들에게 나가달 라고 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회당장은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하튼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순응하여 조처를 취하였습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뉘어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늦잠을 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정한 음성으로 "자,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하시는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 세 제자들의 심령은 기쁨과 감동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편승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킬 가치가 없는 체통은 가차 없이 버렸기 때문에 뭇 사람이 둘러서서 보는 곳에서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직면하게 된 장애와 지체됨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갖게 하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격려를 받고 극복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을 귀감으로 삼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